


[네이버](#) [메일](#) [마이네이버](#) [마이홈](#) [도움말](#)

SK 상사 SK 유통 SK 에너지판매

[뉴스홈](#) [주요뉴스](#) [정치](#) [경제](#) [정보통신](#) [사회](#) [연예오락](#) [스포츠](#) [증권](#) [부동산](#) [세계](#)
[뉴스통합검색](#)
[경향신문](#)
[기사 리스트](#)
[경향신문](#)

년도	월	일	에서
년도	월	일	까지
모든신문			
모든섹션			

[신문사별 뉴스](#)
[연합뉴스](#)
[Joins.com](#)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로이터](#)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스포츠투데이](#)
[코리아타임즈](#)
[섹션별 뉴스](#)
[주요뉴스](#)
[정치](#)
[경제](#)
[정보통신](#)
[사회](#)
[연예오락](#)
[스포츠](#)
[증권](#)
[부동산](#)
[세계](#)
[산업/기업](#)
[건강/생활](#)
[사설/칼럼](#)
[기획/연재](#)
[과학/기술](#)

[뉴스속의 뉴스] DJ'새 여성파트너'눈길

[정치] 1999.09.10 (금) 00:00

「박영숙→이우정→정희경·신낙균·추미애→장영신·한명숙·조배숙·김화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여성인사 영입 흐름도다. 과거 김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신진인사를 영입, 취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영입된 신진인사에는 어김없이 상징적 여성인사가 포함되어왔다.

87년 대선 패배뒤 치러진 88년 13대 총선 때는 재야출신의 박영숙(朴英淑)씨가 평민당에 입당했다. 당시 평화민주당일연구회(평민연) 멤버로 임채정(林采正)·이해찬(李海瓚)·박상천(朴相千)의원 등과 함께 합류한 박씨는 조선으로 부총재에 총재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92년 14대 총선에서는 같은 재야출신의 이우정(李愚貞)씨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씨는 신민주연합의 김말룡(金末龍)·신계륜(申溪輪)전의원과 함께 DJ캠프에 들어와 14대 대선에서 여성계 공약에 앞장섰다.

95년 국민회의를 창당한 김대통령은 외부인사 영입의 무게중심을 재야에서 전문가나 구여권 출신으로 이동시켰다.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신낙균(申樂均)부총재와 추미애(秋美愛)의원이 이때 참여했다.

여성전문가에 대한 선호는 이번 신당 발기인 선정에서 극명히 나타났다. 당 밖에서 발기인에 참여한 장영신(張英信) 애경그룹 회장·한명숙(韓明淑)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조배숙(趙培淑) 여성변호사 회장·김화중(金花中) 대한간호사 협회장 등 4명은 여성계를 골고루 대표하는 중량급 인물이다. 신당 발기인에는 이들과 당내에서 추미애·한영애(韓英愛)의원과 김희선(金希宣) 당 여성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김대통령은 또 장회장을 발기인 공동대표로 선정했고,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한의원을 발기인에 포함시켰다. 여성정치에 대한 김대통령의 한층 각별해진 관심도를 보여준다. 자연 16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성계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양권모기자sulsu@kyunghyang.com>